

인문학적 자기성찰 글쓰기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수업의 효율성 연구

김진희[†]

건국대학교 뷰티화장품학과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Fashion Design Classes Using Humanities Self-Reflection Writing

Jin Hee Kim[†]

Dept. of Beauty Cosmetic, Konkuk University

Received January 24, 2022; Revised (April 22, 2022; May 8, 2022); Accepted May 26, 2022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earning effect, through a satisfaction survey and NVivo qualitative analysis, of fashion design classes using humanities self-reflection writ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learning satisfaction, learners perceived the class as efficient and showed overall satisfaction. Second, learners' opinions were classified into self-reflection writing, design process, new experience of expression, and the understanding of class activities. Third, in self-reflection writing, learners discovered their tendencies and values while exploring their identity through deep thinking. Fourth, in the design process, learners set the design concept consistently through writing. Fifth, in the new experience of expression, learners recognized the idea produced through writing as the result of thought and considered it a new expression method for design. Sixth, in the understanding of class activities, learners were interested in the process and considered it an activity through which to build their own style in design expression. Design class activities using self-reflection writing drew a positive response and presented the possibility of educational use. The teaching method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humanistic method for expressions in various design fields.

Key words: Self-reflection, Reflection writing, Humanities, Fashion design; 자기성찰, 성찰 글쓰기, 인문학, 패션디자인

I. 서론

인문학은 인간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삶과 사유를 위한 언어, 문학, 예술, 철학, 역사 등을 연구하고 있다. 어원인 ‘Humanities’는 인간다움으로, 인간에 관한 탐구를 통해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해명하며 인간다움의 실현을 모색하는 분야이다(Kim

& Park, 1999). 그러므로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적 가치와 감성을 추구하며 실현하는 학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의 인문학은 디자인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현시점의 디자인은 인간 중심의 가치추구를 디자인에 담아내는 활동을 통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산업이 팽창하는 시기의 디자인은 기능적인 가치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기능적 효율성이 충족되면서 점차 디자인은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며 인간을 위

[†]Corresponding author

E-mail: doyo01@hanmail.net

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내면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기능 중심의 디자인에 인문학적 사고가 이루어지면 서 디자인에 인간의 감성이 부여될 때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키며 그 가치가 확고해진다(Kim & Chung, 2018). 즉, 인문학적 디자인은 아름다움도 기능도 모두 인간을 위한다는 것이다.

패션디자인은 인간과 가까운 디자인이며 인류의 탄생과 함께 지금까지 존속하는 산물로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존재의 의미를 함께 부여하는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다. 이러한 복합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패션은 디자인의 감성 발현을 위해 인문학적 사고와 소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인문학적 활동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글쓰기는 개인의 가치와 의미, 감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유용한 활동이다. 이는 성찰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 이해할 수 있어 교육, 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성찰 글쓰기는 주로 자신의 성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며 대부분 교양에서 글쓰기 교육이나 자기 내면을 치유하는 활동 연구(Han, 2014; Ko, 2017; Park, 2017)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성찰을 위한 글쓰기는 과거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대상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사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이다. 본 연구는 인문학적 활동의 하나인 자기성찰 글쓰기를 활용하고자 한다. 자기성찰 글쓰기를 통해 디자인 발현의 근원으로서 자기 내면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고 과정을 통해 디자인을 위한 인문학적 감성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이는 향후 디자이너로서 이루어낼 디자인의 철학적인 방향성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인문학적 자기성찰 글쓰기를 활용하여 패션디자인 작업 활동을 진행한다. 진행에 있어 디자인의 결과보다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한 성찰적 사고 과정을 중시하며, 이와 함께 자기성찰 글쓰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깊게 생각하고 탐색하여 자신만의 감성을 발현하여 이를 디자인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인문학적 활동인 자기성찰 글쓰기를 활용하여 패션디자인을 표현하는 수업 활동을 진행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인문학과 자기성찰 글쓰기를 위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조사와 함께 패션디자인 진행을 위한 과정을 문헌 조사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 개인별 자기성찰 글쓰기를 진행하고 이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연구대상은 4년제 K대학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들이며, 총 8주간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가 기술한 의견들과 수업 후 만족도 설문문을 통해 수업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자기성찰 글쓰기를 통해 개인의 추구 가치와 정체성을 분석하여 패션 디자인에 자신만의 디자인 감성을 발현할 수 있는 인문학적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인문학적 자기성찰 글쓰기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표현능력을 이해하려는 방법에 관심을 두는 학문으로, 보편적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며 특성을 알아가는 인간을 위한 학문 분야이다(Bea, 2012). 인문학의 본질적 의미는 이상적 인간성의 양성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여겼다. 이상적인 인간성은 전문적 능력보다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것을 중시한다. 종합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말과 글을 익히는 것이 요구되었는데, 현시점으로 보면 문학적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Kim et al., 2001). 문학적 글쓰기 교육은 도구적 성격과 인문학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도구적 성격은 언어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위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관련된 교육이며, 인문학적 성격은 자기성찰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Ko, 2017). 인문학적 교육은 자기 이해의 심화, 나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사고 지평의 확대 등을 지향한다(Han, 2014). 인문학은 깊고 넓게 멀리 생각한다. 깊은 생각은 일어난 현상 뒤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고, 넓은 생각은 다양한 시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이며 멀리 생각한다. 이는 지금 나타난 현상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미리 가늠하는 것을 의미한다(Um, 2009).

이러한 인문학적 사고를 위한 근본적인 활동은 자기성찰이다. 이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한 일을 마음속으로 되돌아보고 살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과정 혹은 이를 통해 이전과 다른 행위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2002). 또한, 자아에 대

한 응시를 통한 자기 이해와 함께 자신과 세계, 경험, 지식을 통하여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현재 자신의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다. 자기성찰은 자기 삶을 돌아 보고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미래의 삶을 생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또 다른 자신인 과거의 나를 객관화하고 과거의 삶에서 가치 있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정체성 확립, 자아 존중감 향상, 그리고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Park, 2014).

인문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글은 인간의 사고를 깊게 만든다. 깊은 사유를 위해 책을 읽는 방법을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읽을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와 같은 의미이다. 책 읽기를 통해 드러나는 깊고 넓은 생각은 자신의 발견과 함께 글쓰기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을 읽어 자기성찰을 활성화하는 것은 글쓰기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Ko, 2017). 책을 읽는 방법으로 심리학자 로빈슨이 개발한 SQ3R기법(Kim et al., 2016)을 들 수 있는데, 글을 효율적으로 읽고 핵심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저장하여 회상하기 쉽게 하는 것으로 모두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훑어보기(Survey) 단계로 읽기 전에 미리 내용을 생각하는 것으로 앞장이나 마지막 장, 그리고 제목이나 소제목과 관련지어 내용을 짐작해 본다. 둘째, 질문하기(Question) 단계로 제목이나 소제목과 관련하여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며 내용을 탐색한다. 셋째, 자세히 읽기(Read) 단계로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인상 깊은 문장이나 구절, 중심 단어를 메모한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읽기 과정에 짧은 글쓰기를 함께 진행한다. 넷째, 되

새기기(Recite) 단계로 제목이나 소제목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다. 이때, 전 단계에서 메모한 문장, 구절, 단어를 활용하여 단락의 내용을 구성해 본다. 다섯째, 다시보기(Review) 단계로 지금까지의 단계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중요한 내용이나 생각을 정리하여 한편의 글에 답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책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가능하다. 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2. 패션디자인 프로세스

패션디자인은 인간의 삶과 미적 요구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개인적 성향과 감성을 조형적으로 형상화하는 창의적인 표현 활동이다. 의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체화, 실체화하여 이미지를 표현하고 인체에 조형미를 덧입히는 작업이다. 현시대의 패션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함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존재가치를 주고 있다. 이는 디자인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적 현상으로 이해되며 이를 위해 인문학적인 소양을 통한 디자인 개발과 구축이 필요하다. 인문학적 성향은 맥락적이고 과정 지향적이며 발견적 관점의 특성이 있어 디자인과 접근이 실현될 때 디자인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Kim & Chung, 2018). 이러한 디자인은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한 재발견으로 해석하며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2018).

또한, 좋은 디자인은 명확한 계획안에서 이루어진다. 디자인의 시작은 생각에서 비롯되며 생각이 없는 디자인은 존재하기 어렵다. 디자인은 생각이고 정신

Table 1. SQ3R steps

Step	Content
1 Survey	Think about the contents before you start reading. Take a rough look at the first and last parts through the title or subheadings and predict the content.
2 Question	Ask questions in your mind about the title or sub-headings.
3 Read	Read it calmly from the beginning and check the contents.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you had in mind. Write down sentences, phrases, and words.
4 Recite	Summarize the contents with the title or subheading. Reconfiguring the contents of the paragraph with sentences, phrases, or words.
5 Review	Organizing the contents. Check th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의 문제로 인간에 대한 남다른 생각과 이해는 좋은 디자인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디자인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탄생한다(Kim & Kim, 2011). 대부분의 디자인 작업은 구상, 스케치, 작업의 진행형 절차로 이루어지며 주로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진행에서 벗어나 사고와 행위의 분석적 전략을 활용하면서 실현 가능한 종합적 개발 과정으로 발전하게 된다(Choi, 2002). 많은 종류의 정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생각으로 만들고 그런 생각들을 실체화하는 고도의 정신적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디자인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디자인 프로세스는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정신적인 접근을 모색함으로 최종 해결안으로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조적 사고, 기술적 능력, 경제 그리고 인간의 가치추구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Min, 1995). 패션디자인은 임의적이고 개성과 독특성이 강조되는 문제들로 나타나며 문제해결자인 디자이너의 인지적 활동이 중요한 부분이다. Watkins(1988)의 프로세스는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실제 디자인에 적용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과정 중심적이며, 예술적 감성에 기초를 둔 형태적 특성과 과학에 기초를 둔 기능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프로세스이다. 이를 재구성하여 본 연구의 프로세스를 설정하였다. 이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인문학과 디자인, 성

찰 글쓰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인문학과 디자인 관련 선행연구에서, Cheon(2011)은 괄목할 만한 과학기술의 시대에 디자인을 위한 문화예술의 발전에 있어 인간을 근간으로 하는 인문학적 바탕의 지식과 활용을 중시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Bea(2012)는 디자인과 인문학적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대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디자인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디자인의 발전 방향 제시하였다. Kim(2014)은 즉각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디지털시대에 디자인을 위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연구하며 디자인의 가치실현을 위해 그 중심 맥락을 인문학적 사고에서 찾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Kim and Chung(2018)은 디자인에서 인문학의 중요성과 이에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여 철학적 시각 표현 가능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인문학과 디자인의 연구는 대부분이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인간의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디자인 사례분석이나, 인문학적 사고의 필요성 및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성찰 글쓰기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 Park(2014)은 자기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정체성을 찾고 자아 존중감을 올리기 위한 한 수업 활동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Han(2014)은 자신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통해 자아성찰을 통한 글쓰기를 진행하는 교육 활동을 제안하였다. Ko(2017)는 문학을 활용하여 자기성찰적 글쓰기를 진행하는 수업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Park(2017)은 성찰을 통한 글쓰기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찰 글쓰기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글쓰기를

Table 2. Design process

Watkins design processes			Class processes	
Step	Content		Step	Content
Acceptance	Motivation, problem recognition			
Analysis	Basic search, problem definition, expert interview	▶	Analysis	Design ready - Research, collection, analysis
Definition	Description of design standards, information and ideas			
Ideation	Creating creative ideas by designers			Design plan - Idea, design concept, sketch, work preparation
Idea definition	Choice and combination of facts, data, ideas	▶	Synthesis	Design progression completion - Design work progress and completion
Implementation	Production and completion of the selected idea			
Evaluation	Evaluating the value of the work	▶	Evaluation	Design presentation - Presentation and feedback

위한 수업으로 진행하며 수업사례 및 효과에 관한 연구와 치유를 위한 글쓰기 연구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성찰 글쓰기 분야와 디자인을 연계하여 이를 활용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4년제 K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학습자이며 모두 30명으로 구성하였다. 인문학적 자기성찰 글쓰기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수업은 2020년 1학기로 3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8주간 진행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의견을 기술하게 하였으며 만족도 설문을 시행하였다. 학습자의 의견서는 수업 과정 중 자기성찰 글쓰기를 마치면서, 디자인 과정 중에, 디자인을 마친 후로 나누어 세 번 실시하였으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인식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수업을 모두 진행한 후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28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은 5점 척도 측정을 통한 빈도분석 및 평균점수를 도출하여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학습자가 기술한 의견서의 내용을 질적 연구도구인 NVivo 10.0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 평가의견을 자동으로 정렬하여 문장의 빈도를 키워드를 통해 의견 내용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키워드 선정 및 분류의 적절성을 위해 K대학교 패션디자인 교수 2인과 함께 검토하므로 이를 보완하였다.

3. 학습 활동 진행 과정

1) 수업 진행 구성

본 연구는 개인별로 깊은 자기성찰적 사고 과정을 통한 글쓰기를 진행하여 이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한 디자인 과정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수업 진행을 위해 앞서 설명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재구성하여 분석, 종합, 평가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단계는 디자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디자인 준비단계이며, 종합단계는 디자인 도출을 위한 다양한 발상과 디자인 스케치 작업을 진행하는 디자인 계획과 선택된 디자인의 실제 작업을 실행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단계로 진행한다. 평가단계는 학습자가 완성한 작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상호 피드백을 진행한다(Table 2). 또한, 자기성찰 글쓰기를 위한 도구로 텍스트는 루드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을 선정하였다. 이는 13가지의 생각의 도구를 개념화한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생각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디자인을 위한 생각 방식과 자신의 탐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자기성찰 글쓰기

Table 3. Previous researches

Factor	Researcher	Content
Humanities & Design	Cheon (2011)	Reasons to value humanistic knowledge creation and utilization ability in the design of the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Bea (2012)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design by analyzing the cases in which the public nature of design is realized from the humanities perspective.
	Kim (2014)	The need for humanities education for design in the digital age that presents immediate results.
	Kim and Chung (2018)	Analyzing the importance of humanities in design and related design cases to present philosophical visual expression possibilities.
Reflection writing	Park (2014)	A class activity for finding identity and self-esteem through self-reflection writing.
	Han (2014)	Educational activities that conduct writing through self-reflection through one's image and identity.
	Ko (2017)	A class plan for self-reflective writing using literature.
	Park (2017)	The effect of writing education through reflection.

는 앞서 설명한 SQ3R을 재구성한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단계는 읽고 메모하기 단계로 천천히 읽어가면서 자신의 마음에 닿는 문장이나 구절, 단어를 각자의 방법으로 메모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이때, 주차별로 정해진 분량까지 책을 끝까지 가능한 한 번에 읽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되새기 단계로 자신이 메모해놓은 글을 읽으며 왜 마음속에 닿았는지 문장과 결부하여 자기 경험과 생각이 드러나도록 편한 방식으로 가능한 많은 생각을 적는다. 세 번째는 재구성하기 단계로 두 번째 단계까지 썼던 글을 정리하여 한 장 분량으로 압축하여 적는다. 이때, 최종적으로 적은 글을 읽어 보며 내용과 어울리는 제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콘셉트를 정하거나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이 된다(Table 4). 이와 같은 단계로 글쓰기를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는 자신을 투영하여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본인의 경험과 생각이 담긴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수업 활동

본 연구의 수업은 총 8주간으로 수업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석단계인 디자인 준비단계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총 3주간이며, 디자인 작업을 위한 사전 조사 단계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본 수업에서는 개인별 책 읽기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를 진행하여 디자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주차별로 정한 분량을 읽고 개인별 경험을 스스로 성찰하며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자기성찰 글쓰기는 자기 경험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글쓰기는 제시한 단계를 진행하여 주마다 한 장씩 제출하였다. 본 단계에서 교수

는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자신이 적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를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답을 찾아가며 자신을 탐구하는 글쓰기 활동이 되도록 격려했다.

종합단계는 총 4주간으로 디자인 계획과 디자인 실행완성단계로 진행하였다. 계획단계는 넷째 주와 다섯째 주로 2주간이며, 개인별로 작성한 글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체성, 가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과 추구가치를 토대로 자신만의 콘셉트와 스타일을 결정하였다. 글을 토대로 결정된 콘셉트에 맞추어 디자인을 위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여 교수와 피드백을 통해 최종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이때, 교수는 학습자가 자기 이야기를 자신만의 색깔로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피드백으로 학습자를 유도하였다. 실행완성단계는 여섯째 주와 일곱째 주로 2주간이며,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개인별로 필요한 재료를 결정하고 제작을 진행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디자인 계획과 실행완성 단계는 학습자의 진행 속도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작업 속도가 빠른 학습자는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하였으며, 결정이 늦어지는 학습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대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했다.

평가단계인 발표는 여덟째 주로 완성된 디자인을 전시하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와 상호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본 수업은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며 온라인을 통해 자기성찰 글쓰기 및 디자인 작업의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작업하는 학습자들은 적정한 인원수와 시간을 정하고 서로 유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의 전체적인 구성 및 활동 예시는 <Fig. 1>에 정리하였다.

Table 4. Self-reflection writing steps

SQ3R step	Self-reflection writing		
	Step		Content
Survey			
Question	▶	1	Read & Note
Read			Read up to a certain amount per week and write down sentences, phrases, and words that touch your heart.
Recite	▶	2	Recite
			Write down your experiences and thoughts through a memo.
Review	▶	3	Reorganization
			Reorganize the compressed version through what you wrote. Choose a title that matches the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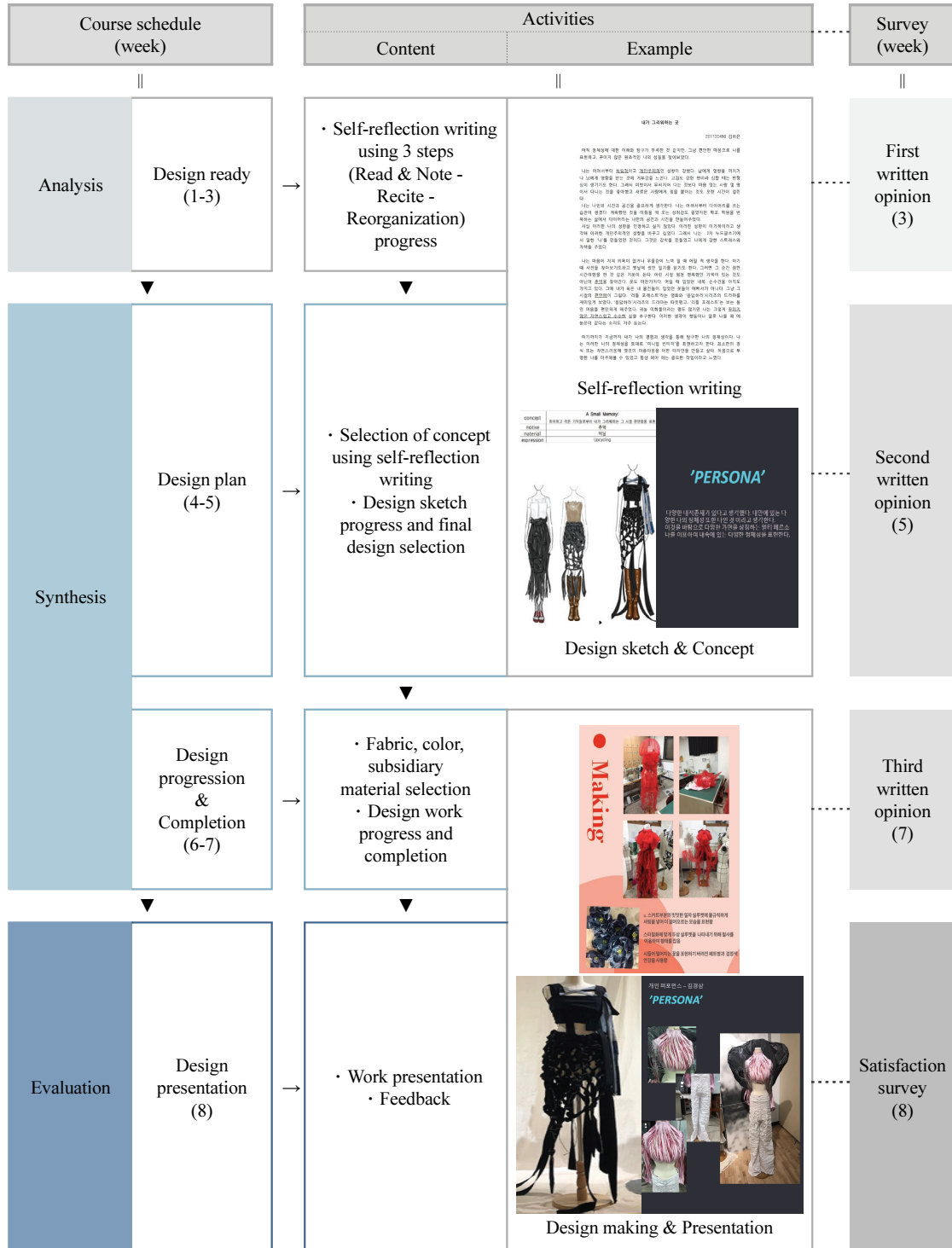


Fig. 1. Course activities.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학습자 만족도 분석

학습자 만족도는 수업 진행 분야와 자기성찰 글쓰기 활용 분야로 구분하였다.

수업 진행 분야에 있어 학습자 대부분이 수업 활동이 유익하다(96.4%)고 생각하였으며 디자인 과정의 흥미를 느끼는 것(92.9%)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 진행 방식의 효율성(89.3%)에 대해 전문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교수자 피드백의 적절성에 학습자 모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찰 글쓰기 과정에서 교수는 학습자 스스로 자기 내면을 탐구하여 명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반응하는 통찰력과 피드백이 요구된다는 Ko(2017)의 내용과 같이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성찰 활동을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므로 학습자의 흥미와 만족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자기성찰 글쓰기 활용 분야는 글쓰기를 통해 디자인 콘셉트 설정과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93.0%)는 것과 디자인 표현의 자신감(89.3%)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점수(4.60)로 학습자 모두가 자기성찰 글쓰기를 디자인 표현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찰을 통한 자기 이야기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새롭게 생각하며 디자인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

낸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처럼 학습자 대부분이 자기성찰 글쓰기를 통한 디자인 진행 과정에 흥미를 보이며, 수업 활동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며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2. 학습자 의견 분석

1) NVivo를 이용한 학습 효과 분석

학습자가 기술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자기성찰 글쓰기, 디자인 과정, 표현의 새로운 경험, 수업 활동의 이해로 분류되었다.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작성된 의견서의 빈도수는 122회(100.0%)로 나타났다. 자기성찰 글쓰기는 31회(25.4%), 디자인 과정은 32회(26.2%), 새로운 표현 경험이 30회(24.6%), 수업 활동의 이해가 29회(23.8%)로 나타났다(Table 6). 각 분야의 의견 빈도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학습자가 자기성찰을 통한 글쓰기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표현하는 활동 수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학습자 의견 분석 및 논의

(1) 자기성찰 글쓰기

자기성찰 글쓰기 활동의 키워드는 ‘생각’, ‘가치관’, ‘정체성’, ‘관찰’, ‘확장’, ‘집중’, ‘의미’, ‘자기 이해’ 등이 나타났다. 본 수업에서 자기성찰은 자기 경험을

Table 5. Learning satisfaction analysis

Factor	Content	Frequency (%)					Average
		Strongly agree (5)	Agree (4)	Neutral (3)	Disagree (2)	Strongly disagree (1)	
Class progress	Was the design class applied to self-reflective writing useful?	15 (53.6)	12 (42.9)	1 (3.5)			4.50
	Did the class progression help to improve your interest?	12 (42.9)	14 (50.0)	2 (7.1)			4.35
	Did the professor's feedback proceed properly?	16 (57.1)	12 (42.9)				4.57
	Do you think the class progression is effective for other classes?	8 (28.6)	17 (60.7)	3 (10.7)			4.17
Using self-reflecting on writing	Did the writing work help you proceed with the design concept and complete the work?	13 (46.5)	14 (50.0)	1 (3.5)			4.42
	Did you think of design expression through writing activities as a new way?	17 (60.7)	11 (39.3)				4.60
	Do you have the confidence to take the lead in designing using writing?	8 (28.6)	17 (60.7)	3 (10.7)			4.17

Table 6. Analysis of learning effects using NVivo

Content	Frequency (%)			Total
	1st After writing	2nd Working design	3rd after class	
Self-reflection writing	17 (73.9)	11 (22.0)	3 (6.1)	31 (25.4)
Design process	3 (13.1)	20 (40.0)	9 (18.4)	32 (26.2)
New experience of expression	2 (8.7)	10 (20.0)	18 (36.7)	30 (24.6)
Understanding of class activities	1 (4.3)	9 (18.0)	19 (38.8)	29 (23.8)
Total	23 (100.0)	50 (100.0)	49 (100.0)	122 (100.0)

떠올리며 자신을 관찰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집중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신에 관한 깊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체성을 탐구하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며 깊게 고민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성향과 가치관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성찰 글쓰기 활동은 책에서 선정된 문장이나 단어를 통해 자기 경험을 함께 녹여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경험이나 생각을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글쓰기를 마친 후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2014)의 연구에서 자기성찰 글쓰기를 과거 삶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자기 정체성 확립,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한 것과 그 의미가 같다. 이처럼 성찰 글쓰기는 자기 모습을 글로

담기 위해 생각을 확장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성향을 인지하고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자기 생각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학습자 의견은 <Table 7>과 같다.

(2) 디자인 과정

본 수업의 디자인 과정에서 ‘콘셉트’, ‘메시지’, ‘주제’, ‘개성’, ‘기획’, ‘가치’, ‘방향성’, ‘스타일’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적은 글을 통해 디자인 콘셉트를 도출하며 어렵지 않게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설정된 주제는 자신의 이야기이므로 쉽게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에 성찰 글쓰기를 통해 드러난 자기 정체성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디자인 가치와 스타일을 생각하며 이를 통해 기획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학습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축

Table 7. Students' opinions I

Opinions on self-reflection writing
- I looked back on my identity and I was able to understand my identity even if I was not perfect because I could'nt find my center.
- I learned how to think deeply about fashion and myself.
- I was able to properly check what I was focusing on and what direction my values had.
- It's interesting to have eyes for thinking and observing in various ways.
- It's time to look back on me. Not only did I learn to establish my identity through it, but I also learned my behavioral tendencies and personality by reading books and comparing them to my own experiences.
- It was a meaningful time to focus on myself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get to know me in more detail.
- I rarely seriously thought about what I wanted or what I wanted to do but I was able to take a step forward in finding my identity through reflection.
- It was difficult at first because I had never thought deeply about myself but as time passed it became a time to get to know me a little more and it became an opportunity to develop a little more.
- I was helped to find my style a little more in the process of writing down thoughts and opinions on phrases inspired or empathized with the book, and I think I had time to expand my thoughts.
- It was difficult to find identity and write based on my thoughts.
- I was worried about how to start writing, but I think it was an opportunity to find a direction and learn how to do it.
- It was not easy to express my thoughts as they are, but through reflection writing, it became easier to say my subjective thoughts and experiences.

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성찰 글쓰기 작업을 거쳐 드러난 자신의 감성을 디자인 안에 녹여내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Lee(2018)의 연구에서 완성된 디자인 결과물의 평가보다 결과물을 유도하기 위한 사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내용과 그 맥락이 같다. 학습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기 정체성을 디자인 안에 담기 위해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고찰의 과정을 진행하며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였다. 이에 관한 학습자 의견은 <Table 8>에 정리하였다.

(3) 새로운 표현 경험

새로운 표현 경험에서는 ‘발상’, ‘아이디어’, ‘관찰’, ‘상상’, ‘감성적’, ‘명확한’, ‘계획적’, ‘차별화’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학습자는 디자인 표현에 있어 자기가 적은 글이 풍부한 발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생각과 글을 통한 디자인 표현을 새로운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대부분 디자인 발상을 위해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본 수업은 학습자가 직접 작성한 글 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다듬고 발전시켜 디자인에 풀어나가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글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상을 풍부한 생각의 결과로 이해하며, 글 속에서 디자인을 발현할 수 있는 색다른 방법으로 인지하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는 글을 통해 다양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발상의 근원지로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새로운 경험으로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어했으나, 점차 표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한 만큼 발견하는 자신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방안으로 이를 활용하였다. 이는 Kim(2014)의 연구에서 디자인의 근원적 맥락은 인간의 심리와 경험의 배경에서 비롯되며, 디자인이 단순한 개발 과정이 아닌 인간적 이해와 자기성찰을 통한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의미가 같다. 이처럼 자신의 글을 통해 생각의 창을 넓히고 차별화된 디자인 감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에 대한 학습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Table 9).

(4) 수업 활동의 이해

수업 활동에 관한 키워드는 ‘흥미로운’, ‘재미있는’, ‘자신감’, ‘책 읽기’, ‘글쓰기’, ‘새로운’, ‘효율적’, ‘정리’ 등으로 나타났다. 본 수업 활동은 자기성찰 글쓰기를 통한 깊은 생각과 분석 활동과 함께 디자인 표현을 위한 개발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학습자는 책 읽기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관찰하고 생각하는 성찰 활동과 자기 생각을 구체적인 글로 적는 글쓰기 활동을 어렵지만 흥미롭게 생각하였다. 또한, 글을 통해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를 끌어내며 작품으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새로운 활동으로 생각하였다. 이

Table 8. Students' opinions II

Opinions on design process
- It was difficult to get a concept, but it was helpful in design because it was easy to get a concept through reflection writing.
- It was good to be able to think about the concept seriously and deeply because it was approached through writing.
- I was able to make a clear decision on the concept, so I received faith in the design.
- I was surprised that I was able to design without losing the concept of identity in the process of designing.
- More than any other topic, I felt a new idea centered on myself and understood myself a lot.
- It helped me a lot in finding and forming my own style.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myself and plan in detail what I like and what design I want to do.
- I could see the design I was pursuing. The style and feeling were made of my own,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create a standard.
- It helped a lot in finding one's personality. I'm very satisfied that I can find my own personality that I didn't even know during design activities.
- As I approached the design using my identity, I came to think about how to express it, and it was good to be able to express the design in my own way.
- Expressing one's identity as a work itself was interesting, and after establishing my distinct identity, it was very helpful to be able to establish a clearer concept in designing.
- I realized the need to melt myself in the design.
- I was proud that I was contained in clothes made based on writing, and the concept that always felt difficult became a little easier.
- It was good to be able to design what I should express and what I should think.
- It was an opportunity to learn more about me and set a direction to move forward with the design centered on me.

Table 9. Students' opinions III

Opinions on new experience of expression
- It is a good way to express your thoughts in writing and refine and modify your thoughts.
- It was good to learn in detail by trimming what I thought in my head in writing and to solve it in design.
- When I designed, I thought that it was a new way that I didn't do before, not just thinking in my head, but that I proceeded with design ideas in a clearer and clearer plan.
- Different starting points of thought seem to be linked to the idea. I think it is my own idea to think about differentiating design through writing.
- I think the activities that make me think and imagine while writing gave useful results to the design idea.
- The new way of thinking is that you can deepen your thoughts by writing down areas that are difficult to express in pictures.
- I think deeper things will come out because I write an article that can maintain my specific thoughts and ideas about them without forgetting them.
- It seems that ideas based on writing become more thoughtful and rich.
- I felt that it was easier to organize my thoughts and make emotional designs in the process of seeing, writing, and reading them myself.
- I think writing and thinking about yourself is the beginning of the idea. The process of deriving a design starting with me can be seen as a design idea.
- Through writing, I learned that I develop better thinking and creativity in a freer state.
- It was fun to work on the basis of one's identity, but since it was my first time doing this, it took more time and was difficult to express it with actual costumes.
- It was even more frustrating because it was a work that I had never done before. However, it was a time to get to know myself as much as I thought and pondered to express my identity.

는 창의성의 풍부한 발현을 위해 글을 많이 읽는 것과 체험학습과 같은 아날로그식으로 축적된 인문학적 활동의 필요를 설명한 Cheon(2011)의 연구와 그의 의미가 같다. 본 연구의 수업 활동에서 학습자 대부분은 깊은 생각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성찰 글쓰기를 자신의 감성을 정리할 수 있는 인문학적 활동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자기 생각을 디자인에 담아내

는 활동을 시도하며 자신의 스타일과 디자인 감성을 유지하고 구축하는 수업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관한 학습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Table 10).

V. 결 론

본 연구는 자기성찰 글쓰기를 활용하여 패션디자이너

Table 10. Students' opinions IV

Opinions on understanding class activities
- The process of creating while agonizing was interesting and good.
- The process of visually expressing identity was the most helpful, and it was an activity that learned what designing was.
- I thought the design was vaguely cool, but I learned specifically what kind of style I was pursuing through writing.
- While writing reflection, I was able to learn how to design through myself, and I was able to look back and organize myself before entering design.
- After reading the text with my eyes and thinking about it in my head, I felt like my concept and style were organized at once in the part where I wrote my thoughts.
- I was able to think a lot about design in the activity of reading a book and writing my story.
- It was interesting to see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 desired style by expressing the design in writing and pulling it out.
- I learned my direction about design and how to organize and express design effectively.
- As I got to know myself well while writing reflection, it was easy and fun to express myself, and it was good to think deeply about the design as well.
- It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become clearer than before. It was good to have an opportunity to think specifically about what I like.
- It was interesting that I could decide the concept with the idea I came up with through reflection writing and do it in the direction I wanted without restrictions until the design was derived.
- It was good to think deeply about myself by looking into my identity and inner self, and this gave me confidence to express my own when designing.

인을 완성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습자 의견과 설문을 통해 학습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만족도에서 학습자는 수업 진행을 효율적으로 인식하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은 자기성찰을 활성화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학습자 모두가 자기성찰 글쓰기를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하며 디자인의 표현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학습자는 성찰 글쓰기를 활용한 수업을 새로운 경험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둘째, 학습자 의견은 NVivo 질적 분석을 통해 자기성찰 글쓰기, 디자인 과정, 새로운 표현 경험, 수업 활동의 이해로 구분하였다. 각 분야의 학습자 의견 빈도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학습자가 자기성찰을 통한 글쓰기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표현하는 수업 활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기성찰 글쓰기 부분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집중하며 깊은 생각으로 정체성을 탐구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성향과 가치관에 대해 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글로 적는 것을 어려워하였으나 점차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생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성찰 글쓰기는 자기 모습을 글로 담기 위해 생각을 확장하여 자신의 성향을 인지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디자인 과정은 글을 통해 디자인의 콘셉트를 설정하여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기 정체성을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생각하고 디자인을 정리하며 계획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디자인 과정을 진행하였다. 학습자는 성찰 글쓰기 작업을 거쳐 드러난 자신만의 이야기를 디자인 안에 녹여내는 것으로 이해하며, 디자인을 진행하는 동안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여 이를 디자인으로 연계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다섯째, 새로운 표현 경험에서 학습자는 자기성찰의 글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글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상을 풍부한 생각의 결과로 디자인을 위해 발현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인지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시각적 자료가 아닌 글 속에서 떠오르는 풍부한 발상을 경험하며

발상의 근원지로서 자기 내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습자는 자기 생각과 글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표현하는 것을 새로운 경험으로 생각하였다.

여섯째, 수업 활동의 이해에서 학습자는 수업 활동을 통해 흥미로움과 재미를 느꼈으며, 디자인의 표현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활동으로 생각하였다. 학습자는 깊은 사고를 통한 자기성찰 글쓰기를 자신의 감성을 정리할 수 있는 인문학적 활동으로 이해하며, 이를 통해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를 끌어내며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효율적인 활동으로 이해하였다.

연구결과, 학습자는 자기성찰 글쓰기가 자신의 정보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지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특히, 학습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디자인에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담아내는 경험을 의미 있게 생각하였다. 성찰 과정을 통해 내면의 자아를 끌어내어 이를 디자인으로 완성하는 작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으나 완성된 자신의 디자인에 더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는 깊게 사유하는 성찰 활동을 디자인의 발현을 위해 지속해서 실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고 활동으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탐색하며 관찰하고 깊게 생각한 성찰 글쓰기를 통한 디자인 표현활동은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활용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인문학적 자기성찰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디자인 감성을 표현하는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수업의 자기성찰 글쓰기 활동이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자신의 감성을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의 근원적인 발현을 위한 인문학적 방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ae, Y. (2012). *The study of the design community through the humanities view*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Cheon, S.-J. (2011). Arts educations with humanities. *The Korean Literature and Arts*, 8, 103-127. doi:10.21208/kla.2011.09.8.103
- Choi, G. R. (2002). *Studies on idea generation for designs*. Se-

- oul: Designnews.
- Han, L.-h. (2014). A study on education of introspective writing using the concept of ego image and narrative identity. *Writing Research, 20*, 335–378.
- Kim, C. K., Lee, S., Lee, Y., Jeong, J.-J., & Choi, W. Y. (2016). *Encyclopedia of counseling, Vol. 1*. Seoul: HAKJISA.
- Kim, D.-H., Park, C., Lee, J.-K., Lee, P.-R., Choi, S.-O., Cho, J.-H., & Hong, Y.-G. (2001). *Humanities in the digital age*. Seoul: Sapyoungbook.
- Kim, G. H. (2014). A study on the humanities education needs for the digital design professional workforce. *Journal of Digital Design, 14*(4), 823–832.
- Kim, J.-h., & Chung, H.-k. (2018). A case study on philographics and importance of humanities in design - A case study on Jenes Carreras -.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62*, 290–299. doi:10.25111/jcd.2018.62.22
- Kim, J. K., & Kim, H. Y. (2011). *디자인이이다: 위대한기업의 위대한 디자인* [Design: Great design of a great company]. Seoul: CommunicationBooks.
- Kim, J. N., & Park, J. S. (1999). 인문학의 위기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유티틀' 모색 [Finding a new frame for thinking necessary in the crisis era of humanities]. *The Journal of Criticism and Theory, 4*(1), 145–182.
- Ko, M. S. (2017).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self-reflective writing through literature. *Korean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21*, 245–285. doi:10.37736/kjlr.2017.09.21.
- 245
- Lee, E.-J. (2002). *The effects of use of reflective journal on problem solving skill and attitude in problem based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S. H. (2018). A study on the creative design thinking by applying opposite concept.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21*(3), 39–47.
- Min, K. (1995). *Design: Human, society & nature*. Seoul: Minjinsa.
- Park, H.-g. (2014). Educational content of self-reflective writing and analysis of teaching and learning cases. *URIMALGEUL: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63*, 69–101. doi:10.18628/urimal.63..201412.69
- Park, H. R. (2017). A study on the writing education effect of the introspective writing. *Culture and Convergence, 39*(5), 631–666. doi:10.33645/cnc.2017.10.39.5.631
- Um, J. (2009). *길을 묻는 철학자* [Philosopher on the way]. Seoul: Moonji Publishing Co.,Ltd..
- Watkins, S. M. (1998). Using the design process to teach functional apparel desig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1), 10–14. doi:10.1177/0887302X8800700103

김진희

건국대학교 뷰티화학제품학과 외래강사
